

가네보, 멜란지 컬러의 순모편사를 개발

일본 가네보사의 양모사업부에서는 특수한 양모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멜란지 컬러의 편사 ‘위너스(weaners)’를 개발하여 95년 추동부터 판매한다.

위너스는 가네보사 독자의 연속 다색슬라이버 프린트(Kanebo color creation systems)를 구사하여, 가네보 패션 연구소와 가네보 컬러센터에서 입수한 최신정보와 지금까지 축적해 온 자료들에서 엄선한 36가지의 색상을 비축하여 단납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료의 특징을 보면, 어린 양이나 위너스울을 주원료로 하고 골반지역에서 채취한 파인울(fine wool)을 혼용하였기 때문에, 불규칙 한 울의 광택과 유연성을 보유하면서 메리노양모의 강력성도 겸비하도록 한 고급의 편사이다.

기술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세계에서 가네보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연속 다색슬라이버 프린트를 구사하고 컬러센터에서 새로운 색상을 개발하였음.

- 방속에서의 사절을 스플라이서로 연결함으로써, 콘 1개당 이음매들이 거의 없는 원사를 생산하였음.

시판되는 변수는 2/48, 2/32로서 각 변수별로 36색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용도는 신사복과 부인복 등의 전 항목에 적용할 수 있다.